

▶ 마크 시더리츠와 마일런 헤트마넥



● 마크 시더리츠 교수(좌)와 마일런 헤트마넥 교수(우)

인문대학에는 현재 네 명의 외국인 교수와 세 명의 외국인 초빙교수가 근무하고 있다. 이 가운데 철학과의 마크 시더리츠 교수(62)와 국사학과의 마일런 헤트마넥 교수(57)를 늦은 10월에 점심을 겸하여 만났다.

시더리츠 교수와 헤트마넥 교수는 각각 작년 9월과 올 3월에 부임했다. 큰 키에 마른 체형의 시더리츠 교수는 매우 섬세해 보이는 인상이다. 이에 비해 묵직한 체구의 헤트마넥 교수는 털털한 느낌을 준다. 시더리츠 교수는 예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동서 비교철학을 연구하며 많은 업적을 쌓아 왔다. 서울대에 오기 전에 일리노이주립대학에서 오랫동안 가르쳤다. 헤트마넥 교수는 하버드대학에서 조선시대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하버드대학과 펜실베이니아대학에서 조교수를 지냈다. 한국과는 1970년대부터 인연이 있고 막걸리를 좋아한다.

서로 매우 달라 보이는 두 사람이지만 인문학의 다방면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경험, 진지한 열정에서는 공통점이 많았다. 미국의 뉴욕 출신인 시더리츠 교수는 처음 추측과 달리 서양이나 동양철학의 어느 한 쪽을 전공하다 비교철학의 길로 들어선 것이 아니었다. “코넬대학에 다니다가 독일에서 1년을 보내게 됐어요. 그때 불교철학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신앙으로서의 불교보다는 합리적인 철학체계로서 불교를 공부하고 싶었어요. 처음부터 비교철학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려면 불교철학과 서양철학을 함께 공부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래서 당시 북미에서 그것이 유일하게 가능했던 하와이대학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산스크리트를 배웠고, 예일대학 대학원에 진학해서는 일본어를 익혔습니다. 박사과정 중에 일본에 2년간 공부하다가 비교철학적 관점에서 일본 철학자인 니시다 기타로(西田幾多郎)에 관해 학위논문을 썼습니다.”

그 뒤 시더리츠 교수의 관심은 이 일본 철학자에만 머물지 않았다. 1980년 일리노이주립대학에 자리를 잡으면서 근 30년간 그는 동양철학과 서양철학을 동시에 가르쳤다. 그러면서 인도 불교철학과 서양의 분석철학의 비교연구에 집중했다. “제 관심은 주로 형이상학과 언어철학이었어요. 상이한 지역에서 발달한 철학 전통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답했는지 천착하는 데 흥미를 느꼈습니다.”

헤트마넥 교수는 알파벳만으로 이름이 발음하기가 쉽지 않다. 그는 캔서스에

서 태어났지만, 집안은 체코 출신이다. 캔서스에서도 시골 출신인 그가 어떻게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 “스탠포드대학에 진학해서는 방대한 지식의 세계에 완전히 압도되었어요. 그 속에서 공부한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지요. 2학년 때 학교 프로그램으로 비엔나에 1년간 가게 되었는데, 그 때 그리스문명에 매료되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그리스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산스크리트어, 아프리카의 하우사어 등도 닦치는 대로 배웠어요.” 산스크리트를 배웠다는 말에 시더리츠 교수의 눈도 빛난다. 이 벽안의 조선사 교수가 산스크리트도 배운 적이 있으리라고는 누구도 생각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학에서 학생설계전공으로 언어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하우사어를 좀 아는 김에 나이지리아에서 가서 얼마 동안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렇게만 시간을 보낼 수 없어서 돌아와 평화봉사단에 지원하게 됐지요. 아프리카에 가기를 원했지만 그 쪽에 자리가 없어 한국에 가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았 습니다.” 그 우연이 헤트마넥 교수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그는 평화봉사단원으로 한국에 와서 전남 고흥 등지에서 보건 업무 등을 하며 3년간 살았다. 그때 얻은 한국 이름이 하민성(河民成)이다. 미국으로 돌아간 뒤 하버드대학 대학원에 진학 하여 한국사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되었다.

시더리츠 교수도 아시아와의 인연은 깊다. 그러나 그가 한국에 오게 된 것은 좀더 학술적인 이유이다. “서울대에 오기로 한 것은 이곳에서 서양철학과 동양철학을 모두 진지하게 연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분야의 연구 수준이 높고, 특히 동양철학을 역사적인 유물이나 신앙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으며 철학체계로서 연구하고 있는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헤트마넥 교수는 하버드대학에서 한국의 족보 연구로 이름 높았던 에드워드 와그너 교수를 만나 조선사 연구의 길로 들어섰다. 특히 그는 조선시대의 사회경제사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어 서원제도에 관해 학위논문을 썼다. “박사과정 중에 2년간 서울대 국사학부에 와서 공부했습니다. 그때가 1980년대에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시절이었는데 한국 학생들의 뜨거운 정의감과 용기가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